

금융감독당국의 기능 업그레이드 필요<케네스 강 IMF 소장> [경제] 2006/08/23 08:35

- 한국 정부 외국자본에 균형적 시각 가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유철 기자 = "IMF는 금융 선진화와 외환시장을 자유화 하는 조치 등 동북아 금융 허브를 위한 한국정부의 '야심찬(bold)' 계획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기능이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여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4일 이임하는 케네스 강(Kenneth Kang)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사무소장은 22일 연합인포맥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한국정부가 외국자본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한국이 외국자본의 투자로 인한 열매를 향유하는데 있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외국자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작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외자유치를 통해 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 회사들에 대한 장벽을 철폐해야 할 뿐 아니라 당국의 감독도 회사 자체가 아니라 기능(functions)과 결과(products)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국의 이 같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 어떤 금융상품인지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금융기관들 스스로 내부적 위험 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를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해 "세계화로 인한 이윤을 (국민들이) 좀 더 공정하게 향유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계층과 분야에 상관없이 이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방향과 관련 강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강화 등이 포함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이러한 개혁조치를 통해 세계화의 열매를 더욱 공평히 누릴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방향과 관련해서 "IMF와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세계화의 열매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세계화가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했으나 이러한 성장으로 인한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오히려) 한국의 소득격차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재벌개혁과 관련,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금융과 재벌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국에서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미흡했었는지를 연구해 다른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며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케네스 강 소장은 "진보와 전진을 향한 한국인들의 헌신적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며 "많은 사람들과 세계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던 지난 6년여간의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케네스 강 IMF 서울사무소장 이임 인터뷰 전문> [경제] 2006/08/23 08:36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유철 기자= 케네스 강(Kenneth Kang)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사무소장은 지난 2003년에 한국에 부임한 이후, 올해 8월까지 3년여간의 임기를 마치고 8월24일 워싱턴 본사로 복귀한다. 강 소장은 11년간의 IMF 재직기간 중 6년 이상을 한국 관련된 일을 수행하며 한국의 IMF 위기 극복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장본인이다. 강 소장은 워싱턴 본부로 돌아간 이후에는 일본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다음은 케네스 강 소장과 이임 인터뷰 전문.

▲ IMF 서울 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소회는.

-IMF 서울 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국과 매우 깊은 유대 관계가 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있다.

대학원에서 석사공부를 할 때 한국의 경제에 대해 공부했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깊은 학문적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IMF 이코노미스트로서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 한국팀과 같이 일하기도 했었고 한국이 금융위기를 경이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 누구보다 빨리 지켜봤다.

이러한 이유로 (IMF 서울 사무소장으로) 한국에서 근무했었던 것은 나에게 특별한 혜택이었으며 (한국 정부에) 작지만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 서울 사무소장 재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재직중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IMF 서울 사무소장으로 한국과 한국 외 정부 관리들과 한국 경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진보와 전진을 향한 한국사람들의 개혁에 대한 열정에 매우 감명받았다. 예를 들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일련의 개혁적 조치들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한세대 이상이 소요되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개혁을 바라는 다른 나라들에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을 더 얘기하자면 국내의 몇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영광스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세계화와 그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등에 대해 배우려는 열정에 매우 감동 받았다. 학생들은 세계화를 통해 엄청난 직업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세계화라는 신세계 안에서 준비해야 하는 학업적, 직업적 그리고 기본 자세 등에 대한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내가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인 셈이다.

▲ 지난 4월 FT가 주최한 '아시아 금융센터 회의'에서 서울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려면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었고,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확실히 말해주고 싶은 부분은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외국 자본은 한국에 엄청난 자본이득을 안겨줄 수 있다. 외국자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며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선진 금융 기법으로 이점을 촉진한다. 한국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기업 환경 개선으로 국내 금융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고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데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한국이 외국자본의 투자로 인한 열매를 향유하는데 있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들이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이들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외국자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작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외자유치를 통해 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금융감독 당국 기능 업그레이드란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나

-IMF는 금융 선진화와 외환시장을 자유화하는 조치 등 동북아 금융 허브를 위한 한국정부의 야심 찬 계획을 지지한다. 이러한 계획은 한국이 금융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매력적인 투자시장으로 발돋움하며, 선진기술에 바탕을 둔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당국이 금융 회사들에 대한 장벽을 철폐해야 할 뿐 아니라 당국의 감독도 회사 자체가 아니라 '기능'과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국의 이 같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 어떤 금융상품인지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나아가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내부적 위험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냐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 세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IMF와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세계화의 열매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가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했으나 이러한 성장으로 인한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과 같은 경제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소득격차는 심화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와 사회계층이 빠른 속도로 분화되면서 한국의 경제 구조는 점점 세분화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이윤을 국민이 좀 더 공정하게 향유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계층 과 분야에 상관없이 이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 해야 한다.

세계화는 신용과 보험 등 금융 분야의 추가 발전과 특히 소기업과 환경이 열악 한 근로자들을 포함해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또 유연성과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시장 개혁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또한 포함한다.

이런 개혁들은 한국이 세계화의 혜택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장기적 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도 공헌한다. 이러한 개 혁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강화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이러한 개혁조치를 통해 세계화의 열매를 더욱 공평히 누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 앞으로 계획은

-IMF 본부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 로 돌아가 일본을 담당할 예정이다. 11년 간 IMF 재직기간 중 6년 이상을 한국과 관련된 일을 했다. IMF 한국 소장으로 재직 했던 경험은 매우 가치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현재 일본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도전을 이해하는데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MF 본부를 포함한 전 세계의 IMF 사무소들은 한국을 금융과 재벌 개혁을 원하는 다른 나라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여기고 있다. IMF와 IMF 회원 국들, 특히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던 한국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아시아의 나라들은 곧 중요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IMF는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에서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 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겠다.